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5월

“현장에서 우리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을 찾자”

KREI 현장토론회 강원도 홍천과 평창에서 개최



연구원은 우리 농업의 해법을 찾자 KREI 현장토론회를 22일 강원도 평창 대관령원협에서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농촌 현장에서 우리 농업의 해법을 찾자 KREI 현장토론회를 5월 22일 강원도 홍천과 평창에서 갖고, 23일에는 농촌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새롭게 변하는 농촌현장에 산적한 우리 농업·농촌문제의 해법을 찾자 기획·추진하게 되었다.

평창, 경종 농업·농산물 수출 토론회

오세익 원장은 5월 22일 강원도 평창 대관령원협에서 열린 KREI 현장토론회에서 “연구원은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 주요 농정 현안과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농촌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해 연구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책제안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종농업과 유통, 축산 전문 연구자들과 목축권 백두대간 대표와 대관령원예조합장 등 지역 대표 농업인

30여 명이 참석하여 열린 토론회를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품목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산지유통개선,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대관령 중산간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의 인력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농업인들이 젊은 후계인력 육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후계 인력이 제도적으로 농지를 확보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수출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을 저리로 장기화하는 상환조건 완화가 필요하며, 생태농업과 경관작물 지원확대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횡포의 개선이 시급하며 이에 맞게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전 토론회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열려 박성재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우리 연구원 축산 전문 연구자들과 늘푸름홍천한우클러스터사업단 이종현 단장 등 지역 한우 관련

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하여 한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한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한우 브랜드화 추진 시 나타나는 애로점과 개선 과제, 한우이력추적제 등 한우 산업의 현장 애로 사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홍천, 한우산업 발전방안 토론

특히 한우의 계획적인 출하를 위해 한우 산지와 가락시장 도축장 간에 예약출하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제곡물가격이나 환율 상승 시에 배합사료 가격에 즉시 반영되어 올라 가지만 반대가 되면 가격인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이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 소고기 생산의 안전성 및 품질 문제는 농가가 책임지고, 유통과정은 정부가 책임진다면 농가는 보다 우수한 소고기를 생산하여 출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오세익 원장과 연구자들이 주요 농정현안과 미래농업이란 주제로 수차례 농촌현장을 둘러보고 현장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슈를 정리해 왔다. 앞으로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REI 현장토론회를 계획·개최하게 되었다. 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보강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농촌의 현장애로도 해소하는 토론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 위한 현장워크숍 개최



화천군에서 5월 7일과 8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워크숍'을 가졌다.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는 5월 7일과 8일 화천군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기초생활권의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을 위해 농어촌의 생활 서비스 실태 및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자 갖게 되었다.

워크숍에는 화천군 정갑철 군수를 비롯하여 주민 및 공무원 20여명, 농림수산식품부의 안호근 농촌정책국장, 김미숙 농촌사회여성팀장, 이은정 농촌사회여성팀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에 관한 주제로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과 관련한 정책 추진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서비스 항목과 기준, 추진체계 등 잠정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달성되어야 할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지방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서비스 수요에 관한 공무원 및 주민들의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화천군의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은 주거환경, 교통,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농어촌지역에서의 생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 수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워크숍을 마친 후 화천군의 학습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지소, 토고미마을 등을 방문했다.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 토론회

연구원은 5월 27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농림부와 공동으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대 박중수 교수 사회로 열려 우리 연구원 박성재 부원장이 '상호금융연합회 설립 및 운영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부원장은 상호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상호금융 체제 개편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의식 연구위원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 농협경제연합회 조직과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김홍달 상무는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박순연 과장, 농협중앙회 구조개혁추진단 김진국 단장, 나주남평농협 김병원 조합장, 안양대학교 김

동환 교수,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입업 통상협상 관련 정책간담회

산림정책연구실은 4월 30일 대전 산림청 회의실에서 '입업 통상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우리 연구원 석현덕 산림정책연구실장을 비롯, 연구진 전원과 산림청 박종호 국제협력과장 및 담당부서 공무원 13명이 참석했다. 연구원 이상민 부연구위원은 입업분야 중장기 통상협상 방향에 관한 주제로, 산림청의 입업부문 통상협상 담당관인 이치명 서기관은 입산물 부문 FTA 협상현황 및 전략에 관한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민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인 대외통상에 대한 현황과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입업분야가 향후 통상협상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투자를 통한 자원 확보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의 관계 공무원은 예상되는 피해품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입산자원에 대한 해외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기반이 약해 우선 해외투자 여건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9년도 22개 기본과제 중간검토회의 개최



올해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22개의 기본과제에 대한 중간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22개 기본과제에 대한 중간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중간검토회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회의이다.

연구원은 4월에 1과제, 5월에 21과제 등 22개 연구과제에 대해 중간검토회의를 갖고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를 점검했

다.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겨 중간세미나를 갖고 있으나 비교적 연구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번 논의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연구를 추진하여 9월에 최종세미

나를 갖고 연내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중간검토가 이루어진 과제수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식품정책연구본부 8과제,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8과제, 글로벌협력연구본부 4과제, 산림정책연구실 1과제, 미래정책연구실 1과제 등 총 22개 과제이다.



한식세계화의 추진 현황과 과제

이 계 임 연구위원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풍부한 식재료와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하고, 수천 년 이상의 음식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한식은 육류보다 채소류와 어패류를 주로 사용하며, 튀기기보다 데치거나 찌고 삶는 등의 건강형 조리법이 이용되고, 발효식품이 중심이 된 자연식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식은 예로부터 음식과 약의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사상이 배어 있는 건강·웰빙 지향형 음식으로 반만년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음식문화를 이루고 있다.

한식, 세계 식품소비 트렌드에 부합

한편 우리의 우수한 한식문화는 꽤나 오랫동안 잊혀져 온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는 일제식민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문화적으로 단절되었으며, 해방 후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동안 잊혀지거나 방치된 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제성장 이후 '빨리빨리'의 문화적 흥수 속에서 패스트푸드를 중심으로 한 외국 식문화를 무절제하게 수용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을 지닌 한국의 전통 식문화는 쇠퇴되어 왔다.

한식의 위상과 관심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적 지위 향상, 한류열풍, 한일월드컵 등을 통해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진 2000년대 이후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식이 균형잡힌 영양식으로서 건강, 맛 지향의 세계적인 식품소비 트렌드에 부합되는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WHO에서 한식을 영양적으로 균형을 갖춘 모범식으로 선정하고, 미국 헬스(Health)지에서 2006년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으로 선정하는 등 한식의 우수성이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농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한식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식세계화 포럼'을 시작으로 지난 달 4일 '한식세계화 추진단' 구성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한식세계화 사업의 근간을 만들었다. 한식세계화가 '국민적 합의', '범 정부적 결집' 등을 이루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식세계화, 기본방향 논의 필요

첫째, 한식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다. '한식'에 대한 정의는 어떤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에서 한식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술적인 의미의 한식과 정책 대상인 한식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정책대상 한식을 전통적인 식재료와 조리방법을 이용한 고유한 음식으로 한정할 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대상품목 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라면, 김밥, 치킨 등 한국 고유의 음식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 한국화 된 메뉴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둘째, 한식세계화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한식세계화 추진전략에는 다양한 홍보 전략과 브랜드 및 식당수에 관한 정량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계적인 추진에 대한 체계화된 로드맵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소 상충되어 보이는 '표준화'와 '현지화', '퓨전화'와 '전통식 고수', '단품식'과 '고급 한정식' 등에 대한 논의가 수렴되고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식세계화 사업은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식세계화 사업은 국내에서 한식 문

화가 제자리를 찾고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세계화에 치우쳐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한식당은 영세한 규모와 과다 경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위생 관리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식의 위상 제고와 한식문화 홍보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의 한식 상품성 제고를 위해 국내 한식문화와 한식당에 대한 위생과 품질 경쟁력 제고 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유명 호텔에 한식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국내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와 연계되어야

넷째, 대상 국가 소비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 한식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일본과 중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진출 고려 시 한식의 맛·향·외관 등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 시 한식이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청소년들은 한국음식을 주로 집에서 소비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시장에는 '상품 개발'이, 중국시장은 '한식당 진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한식세계화 정책은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얻어냈고, 다양한 의견들이 빠르게 수렴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모처럼 한식에 모아진 국민적 관심을 통해 한식세계화, 외식산업의 육성, 국가브랜드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



농업인의 정년은?

최 경 환 연구위원

최근 국회에서 농업인 정년 법제화가 발의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와 농업계의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해 남은 생애기간 잃게 되는 일실(逸失)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농업인(노동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손해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농업인 정년 60세 기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손해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가 있으나 일관되지 않다.

선진국,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

정년(停年)은 “공무원이나 기타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함을 요하는 연령”(停限年齡)이다. 즉 어떤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의미한다.

정년제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고 신규 인력을 확충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다른 하나는 고령 근로자가 그동안 직장과 사회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고용(소득)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되는 가운데 어느 측면을 강조하는냐는 기업과 사회 및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에는 후자의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다.

미국은 1966년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86년에는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년을 시행하려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인 65세 이후로 할 수 있다”고 관련 법 조항을 개정했다. 스페인에서는 65세가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은퇴하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일본도 1998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정년을 60세로 정했으며, 최근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도 운영 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동법 제20조 1항).

농업인의 정년 개념 아직 없어

정년제도는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것이다. 자영업자인 농업인에게는 아직 정년 개념이 없다. 농업인 정년 법제화는 타 자영업종과의 형평성이나 실익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손해보험업계가 농업인 정년을 60세로 보는 데에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총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1%이다. 이중 70세 이상도 30.5%나 된다. 이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은퇴농업인이 아닌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실태이다. 요즘 농촌에서는 60세라면 젊은이 층에 속한다.

둘째, 농업인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 농정에서도 농업인의 정년을 65세 이상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농업구조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영이양직불제는 지급 대상을 65~70세로 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매사업은 지원자격을 만 60세 이하로 하고 있다. 60세까지는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 구입비 지원이 가능하다. 즉 농업인의 60세는 은퇴할 연령이 아니라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연령이다. 농지매매대금의 납부는 75세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상환하면 된다.

셋째, 정부에서는 현재 만 60세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면 보편적으로 65세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0세 정도였다.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소득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개선, 의학의 발달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평균수명이 80세에 달하고 있다. 연금 지급 연령의 연장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미 농업인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동차 손해배상 약관을 통해 농업인의 정년 기준을 67세로 하고 있다.

넷째, 현재 손해보험이나 개인연금 상품들의 대부분이 80세 보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100세까지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도 등장하였다. 이는 보험업계에서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령 사회에 걸맞은 정년 설정 필요

고령 시대의 정년은 일터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할 연령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보람과 소득을 얻는 활동이 가능한 최고연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인 정년을 60세로 보는 손해보험사의 입장은 현실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우려하는 고령사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경험하며 차분하게 대응했던 것을 우리는 단기간에 감당해야 한다. 그만큼 몇 배 더 힘들고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국가정책은 물론,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도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엄연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R**



목재펠릿, 재생에너지의 핵이 될까?

석현덕 연구위원

펠릿은 종이나 목재부스러기, 식품 따위를 동글게 뭉친 고품질이다. 이중 목재펠릿은 목재부스러기를 뭉쳐서 가는 연필 굵기에 1cm 정도의 길이로 만든 것이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목재펠릿을 주요한 재생에너지로 상용화하고 있다. 유럽 450개, 북미 100여개의 생산시설이 말해주듯이 목재펠릿은 이미 상용화 수준을 넘었고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용방식이 다양해진 원인이 있다. 개별가정의 난방에서 집단난방 그리고 지역난방까지, 열과 전기를 자가용으로 생산하는 경우부터 에너지로 판매하는 화력발전소 형태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펠릿, 경제적·환경적인 연료로 각광

펠릿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서의 매력도 크지만 화석에너지와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규격화로 운반이나 보일러 작동이 자동화되어 있고 단위 열량도 매우 높아 경제적이다. 유럽처럼 대량생산에 대량유통, 대량소비되는 구조에서는 화석연료보다 경제적이다.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폭발이나 화재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큰 장점이다. 여기에 목재펠릿을 쓰면 지구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일조 한다는 자부심도 있다.

이러한 펠릿이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다. 화학반응이 필요 없고, 물리적으로 형태를 만들기 때문인데 그 과정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재인 산림바이오매스가 매우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펠릿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펠릿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펠릿사용에 있어서 현재의 유가로는 비용면에서 장점이 별로 없다. 물론 작년에 급등한 유가에 비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만 유가가 현 수준에서 등락한다면 소비자들이 굳이 펠릿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비용이 너무 비싼 것이 펠릿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힘든 주요 원인이다.

펠릿 상용화, 선결과제 풀어야

두 번째는 편리함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의식문제이다. 잘 연결된 도시 가스망, 전화만 하면 배달되는 석유 연료, 세계최고의 편리함을 자랑하는 난방기구가 소비자들을 너무 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웬만큼 가격이 싸지 않으면 편리함에 젖어 있는 소비자들을 자극할 수 없다. 셋째로 펠릿소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다. 펠릿 보일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 크고 작은 문제가 많다. 고장이 잦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당연히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펠릿의 배달이나 사용에 있어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 소규모 포장으로 배달되니 사용할 때마다 뜯어야 하고 별도의 보관 장소도 필요하다.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 목재펠릿의 용도는 실로 무한하다. 우선 농산촌지역의 난방용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고장없고 편리한 보일러가 값싸게 보급되고 질 좋은 펠릿이 쉽게 배달되어 사용할 수 있다면 농산촌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개개인이 따로 사용할 수 있고, 마을단위로 뭉쳐 공동의 열원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시설도 타깃이 될 수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의 집단시설로서 전국에 퍼져있는 펜션이나 휴양시설, 학교와 요양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근교의 시설원예농가도 중요한 소비처가 될 것이다. 값이 올라 경제성을 어느 정도 상실한 시설원예 농가들의 면세유

가 주요 대체 대상이 될 것이다. 펠릿을 대량으로 사용한다면 포장을 생략하여 유통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더욱 경제적인 것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도농인접지역의 산업시설도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의 친환경적인 정책과 맞아 떨어진다면 직접 생산한 펠릿을 해당 지역의 공단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펠릿, 엄청난 석유 수입 대체 효과

펠릿 산업이 활성화되어 연간 숲 가꾸기 가능 면적인 20만 ha의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약 절반을 펠릿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약 30만톤의 난방유가 절약되어 4천 4백억원 정도의 화석연료의 수입을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관련 전후방산업에 연간 약 2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배출효과를 현재 탄소가격으로 환산하면 3백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 외 간별로 인한 산림자원의 증가, 산불피해 경감, 산림병해충 감소로 인한 산림의 건강성 증대 등 유무형의 편익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세계 목재 펠릿시장은 최근 들어 더욱 팽창하고 있다. 우리보다 산림 자원량이 부족하고 자원수집비용이 비싼 나라에서도 목재펠릿의 사용은 급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도의 65%가 산림자원으로 가득한 우리나라에서 이제야 펠릿산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쉽게 개인자본이 뛰어들기 어려운 펠릿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면 목재펠릿은 재생에너지의 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R**

대두 국제가격, 다시 상승기조로 전환

김태곤 연구위원

금융위기 영향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하락을 계속하다 최근 상승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 중에서 대두가격이 주목을 끈다.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에서 투기자금이 빠져나간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른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선도하고 있다.

구조적인 수급 불안으로 인해 쌀·소맥·옥수수 등 곡물과 마찬가지로 대두 가격도 2006년 10월부터 상승하였다. 2008년 7월 최고를 기록한 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을 계속해 왔다. 여기에 인플루엔자 영향도 가세하여 시장에 충격을 가하였으나 4월 이후 반전하여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대두·옥수수·소맥 등의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

대두 가격은 상승하기 직전인 2006년 9월초 부셸당 5.37달러에서 2008년 7월초 16.58달러까지 폭등하였다. 2008년 12월 초 7.84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5월 말 가격은 12달러에 접근하는 등 오르기 이전가격의 2배 이상에 달한다. <그림 참조>

미국 농무부의 2009년 5월 전망에 의하면 2009년도 세계 대두 생산은 2억 4,170만톤, 소비는 2억 3,150만톤으로 생산이 소비를 상회한다. 전체의 94%가 대두유·대두박 등으로 가공되어 식용·사료용·공업용 등으로 소비되며, 나머지 6% 정도가 직접 식용으로 쓰인다. 재고율도 전년에 비해 3.3% 포인트 높아져 수급이 약간 호전되고 있으나 가격은 상승하는 형세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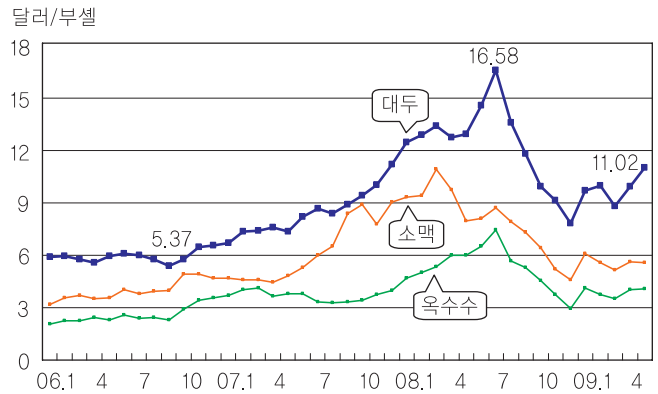
왜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가. 대두는 다른 곡물과는 달리 유일하게 중국·미국 등 북반구와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반구에 걸쳐 생산된다. 이 때문에 생산 안정이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국지적인 기상재해로 인해 가격 변동이 심한 특징이 있다.

또 대두는 옥수수와 대체관계에 있다. 미국에서 대두 식부는 옥수수의 연작장해 회피와 대두·옥수수 간 상대가격 등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후자가 크게 작용한다. 상대가격비는 2.5배가 적정수준이며, 농가는 이보다 높아지면 대두, 낮아지면 옥수수를 선택한다. 지난해 옥수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때문에 금년도는 대두에서 옥수수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대두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의 최대 대두 산지인 헤이룽장 성에서 대두에서 옥수수로의 전환이 현저하다. 중국은 최근 유지 원료용 대두 수요가 급증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브라질과 미국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예상 이상으로 식부감소와 중국의 수입증가 및 재고확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한발에 의한 감소 전망

대두가격 추이



주: CBOT의 매월초 가격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격상승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관심의 대상은 중국의 식량사정이다. 다른 상품과는 달리 식량은 경기영향이 적은 편이다. 벌써 바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수출수요 증가와 재고감소 전망 등으로 수급긴박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배후에는 중국의 존재가 선명하다. 경제성장에 의한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대두 무역은 단백질 성분이 많은 국내산은 수출하고 유지 성분이 많은 해외 대두를 수입하는(出蛋入油)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3,750만톤의 대두를 수입하였고, 금년은 3,80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대두가격을 크게 자극하였다. 2009년도 중국의 대두 자급률은 30%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 한국의 대두 자급률은 11%이고, 일본은 5%다. 3국 모두 대두의 해외의존도는 매우 높다.

향후 가격은 기상조건과 투기자금 등에 지배

미국 농무부는 금년도 세계 대두 무역량이 7,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수입은 3,800만톤, 한국 120만톤, 일본 400만톤 등 동북아의 수입량이 4,320만톤으로 세계 대두 무역량의 6할에 달한다.

지금은 시장에서 투기자금이 배제되고 현장에서 식부도 끝난 시기다. 향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 가지다. 하나는 8월 말까지 기상조건에 의한 작황이 문제이고, 인플루엔자와 경기후퇴 등에 의한 육류 소비감소와 이에 따른 사료수요 감소가 또 다른 변수다. 그리고 현재도 일부 투기자금설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투기자금 유입도 가격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R]

5월 주요 농정 동향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 추진단」 공식 출범

5월 4일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농림수산물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세대 교무처장 등 3인의 공동단장과 관계 부처 차관, 학계, 식품업계 CEO, 일반경제계 인사, 농어업인 등 총 36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진단은 한식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계 부처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한식세계화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 4월에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식세계화 포럼」을 운영하여 한식세계화를 위한 주요 전략과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한식세계화 선포식」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식세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실현」을 비전으로, 세계화 인프라 구축, 한식 R&D 확대,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및 투자 활성화, 우리 식문화 홍보를 주요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금년 4월 9일에는 「한식세계화 2009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음식산업의 동향과 한식의 포지셔닝'을 주제로 세계시장에서 한식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이 논의되었다. 프랑스·일본·태국의 '국내외 음식 세계화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들도 논의되었다. 또한 '한식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농식품부가 '한식세계화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다. 추진전략(안)의 세부 추진방향은 '국내 산업화 대책'과 '한식의 해외진출 확대' 이렇게 두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산업화 대책은 한식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한식 요리명장 프로젝트, 스타 한식당 프로젝트, 한식 매니아 만들기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한식의 해외진출 확대는 한식세계화 R&D 프로젝트, 한식 이미지 UP 프로젝트, 알기쉬운 한식 프로젝트, 한식문화 알리기 프로젝트, 한식 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낙후된 천일염 산업, 개선 필요

국산 천일염은 2007년 기준으로 약 30만톤이 생산되어 국내 천일염 수요의 약 10% 정도만을 충족시키고 있다. 국산갯벌 천일염은 외국의 암염 등 다른 소금에 비해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알카리성 소금으로 그 품질이 우수함에도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 신안 천일염 산지 판매가격은 200~250원/kg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가격은 5만~8만원/kg으로 한국산의 200~400배 수준이다. 또한

외국 프리미엄급 소금은 고가임에도 비중이 매년 20% 이상 급증하여 국내 고급 천일염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천일염 산업 위축은 생산시설의 낙후, 생산 작업의 기계화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이물질 미처리로 인한 품질안전 미흡, 중국, 동남아 등에서 저가로 수입된 천일염의 국산 둔갑, 전통적인 도매상 중심의 낙후된 유통시스템 등 산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등 외국에서 천일염에 대한 우수성과 기능성이 입증되고 있어 향후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현재 시장 규모는 1,000억원이나 향후 5년 뒤 1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김치세계화와 연결한 천일염 수요 확대, 낙후된 생산 및 유통기반의 획기적 개선, 작업의 조속한 기계화, 수입소금의 포대갈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이물질 제거를 위한 대형 가공유통처리시설 지원, 산지 완전 포장화, 중간 도매상 기능의 축소 등 산업 전반의 획기적 개선이 절실하다.

농림수산물부, 「농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책」 발표

농림수산물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농수산물 물가 안정화를 위해 5월 12일 「농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책」을 발표하였다.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전체 소비자물가는 월평균 0.4% 상승한데 반해, 농축수산물은 2.2%로 크게 상승하였다. 올해 4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3.6% 상승한데 비해 농축수산물이 12.2% 상승한 것을 보아도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수산물의 물가가 급등한 것은 고유가, 고환율에 따라 영농자재비 및 가온비용이 증가하여 채소·과일 등의 겨울철 시설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봄철 이상기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수확이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상승에 따라 올해 1~3월 농축수산물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7% 감소하는 등 수입량이 감소한 것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책」의 주요 품목별 대책은, 직거래장터 및 농협유통직영매장 할인판매 실시(돼지고기), 토종닭 수매량 1,450톤 방출(닭고기), 봄배추 농협계약물량 5천톤 출하(배추) 등이 있다. 한편, 양파는 '09년산 생산 증가로 가격하락 추세에 있으며, 감자 역시 5월부터 봄감자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정리: 미래정책연구소)

부서별로 2009년도 연구혁신 워크숍 개최



기획조정실은 광릉수목원을 방문한 뒤, '경영목표 실천'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였다.

직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창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5월 15일과 16일 부서별로 2009년도 연구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식품정책연구본부는 강원도 양양에서 팀제 도입에 따른 연구업무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농식품부 조직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는 경기도 가평에서 기초생활권발전지원단 설치(안)과 농촌정책연구회 구성(안), 농업·농촌 지역통계 DB 구축(안)을 검토하며, 향후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아침고요수목원과 가평 특선주 제조 공장을 시찰했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인천 강화 석모도에서 '농업관측정보센터 발전과 업무 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로 부서별 발표와 토론회를 한 뒤 강화도 지역 특산품인 순무 가공공장을 돌아봤다.

글로벌정책연구본부는 충남 태안에서 '글로벌정책연구본부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팀별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하고, 안면도에서 열린 세계꽃박람회를 관람했다. 산림정책연구실과 미래정책연구실은 충남 태안에서 '중장기 연구과제 및 미래이슈 발굴'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기획조정실은 강원도 남이섬에서 '부서 의사소통 활성화 및 창의적 경영목표 실천 방안'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갖고, 경영목표의 실천방안과 실천계획 계량화를 집중 논의했다. 또한 광릉국립수목원을 시찰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요나농산을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행정실은 전남 무안에서 '개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 역량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고,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농림수

산식품 연구개발(R&D) 정책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북한산행을 하였다.

□ 연구진 대외활동

△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5월 20일 경기도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통일교실 특강에서 '북한농업 실상과 교류협력 방안'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 박시현 선임연구위원은 5월 28일 서

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농촌관광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녹색성장 시대의 농촌관광'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5월 29일 고려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농촌정책과 삶의 질 정책 평가와 제언'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송주호 연구위원은 5월 19일 명동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통상정책 세미나에서 'DDA 협상 및 쌀 관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5월 1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여성의 경제력 증진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 송미령 연구위원은 5월 18일 농어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였다.

△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5월 12일 농업연수원에서 '한국 농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우병준 부연구위원은 5월 7일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축산경영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축산물 유통 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포럼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후변화대응포럼'은 농진청 이충근 박사를 초청, 5월 21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본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연구책임 김창길 연구위원)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포럼』은 5월 21일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이충근 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박사는 기후변화 적응 벼 생육 시뮬레이션 분석(ORYZA 200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네덜란드 와게닝겐 그룹(Wageningen Group)과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 개발한, 벼 생육모델인 'ORYZA 2000'을 소개한 뒤 온도와 이산화탄소(CO₂) 농도의 변화에 따른 벼 생육상의 영향에 관해 발표했다. CO₂의 농

도가 증가하면 광합성량 및 단수가 증가하여 벼 생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온도가 증가하면 호흡량의 증가, 생육기간의 감소, 수량과 품질의 저하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벼 생육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CO₂

농도(340ppm) 하에서는 온도가 1℃ 상승할 경우 벼의 단수가 7.5%, 2℃ 상승할 경우 12.1% 감소하게 된다.

"현재 온난화에 따른 벼 단수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작기를 조절하거나 품종을 개발하는 등 적응방안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이 박사는 밝히며, 온난화로 인해 작물의 주산지가 이동하게 되면 그에 맞는 정책의 변화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후 질소량의 변화에 따른 벼 생육 시뮬레이션 가능성, 시뮬레이션에 의해 도출된 자료의 경제적 분석의 활용 등 생육모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